

결 재	계	부장	교감	교장

<h1>보도자료</h1> <p>2018. 10. 11.</p>	 <h2>상 해 한 국 학 교</h2> <p>SHANGHAI KOREAN SCHOOL</p>
	<p>창의인성부 ☎ 6493-9607</p>

자료문의: 주하운 ☎ 6493-9607 부장: 박석구 담당: 주하운

제목 : 상해 한국 학교, 제10회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상해한국학교(교장 신현명)에서는 지난 10월 9일(화) 음악당에서 한글날을 맞아 제10회 한글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글과 관련한 연극, 노래, 춤, UCC 상영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글신문부에서는 한글날 특별판 ‘한글, 그 찬란함이란’ 신문을 발행하였고 한글로 귀걸이, 향초, 에코백, 병풍 등으로 디자인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날 행사는 중등과 고등으로 나누어져 공연하였는데 중등 기념행사에서는 한글이 창제된 과정을 재현한 ‘소리 없는 혁명’ 연극, 한글 창제의 의미를 연극과 춤으로 표현한 ‘뜨거운 아이들’의 공연, 한글이 창제된 과정과 한글의 우수함을 UCC로 만든 ‘한글은 처음이지?’ 등 다양한 공연이 있었다. 고등 기념행사에서는 한글 학회의 국어대사전 편찬과정을 그린 ‘경성에서 걸려온 전화’, 비속어, 줄임말, 외래어의 문제점을 재밌게 다룬 ‘드림하이’ 공연, 한글의 우수함을 랩과 노래로 표현하거나 ‘한글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 발표도 있었다. 이번 한글날 기념 행사는 영상 소비가 익숙한 영상 세대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이전보다 UCC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한글의 우수함을 ‘신서유기’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만들거나, 한글 사랑을 뮤직 비디오로 만드는 등 상해 한국학교 학생들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영상들이 많았다.



한글날 행사 사진

상해한국학교 교장 신현명은 “전 세계 11000여개의 언어 중에 문자가 2900개가 있고 그 중 창체 시기와 목적, 원리가 알려진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 세종대왕은 기존의 한자라는 관행을 깨고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시는 데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이런 우수한 문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글 디자인 사진

끝.

2018. 10. 11.
상해 한국 학교장